

광주교육 '시민협치'로 도약...광주다운 교육생태계 조성

이정선 시교육감 공약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3월1일 개원 기후환경·대안교육·마을교육공동체·늘봄지원센터 등 운영 계획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원장 김진구)이 오는 3월 1일 '미래로 가는 광주교육! 시민과 함께 가요!'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다. 시민협치진흥원은 광주시교육청의 3대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모두가 동행하는 시민협치'의 실현을 위해 지난 1년간 설립추진단을 구성해서 활동해 온 직속기관이다.

광산구 신창동 구 교육연수원에 자리한 광주교육 시민협치진흥원은 시민협치 기후환경과, 지역교육 협력과, 학부모참여과 등 3개 부서를 두고 있다. 시민과 학부모, 지역사회 단체, 지자체 등과 교육관련 협력체계를 만들고자 직선 4기 이정선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출범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생태전환교육, 대안학교와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 대안교육 총괄

광주교육 시민협치를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 3주체뿐만 아니라 시민, 마을교육공동체, 교육단체, 시청과 5개 구청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책임교육, 다양성교육 등 7개 분야에 195명의 참여해 새로운 민관 협치 모형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교육감이 직접 참여하는 100인 100분 토론회를 매년 개최하고, 시민과 학부모, 학생 1만여 명이 참여하는 '광주교육협치한마당'이 선보이게 된다.

기후위기에 따른 생태전환교육이 실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초·중·고 전 단계 학년, 전 교과목에서 4시간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하며, 생태전환교육 수업 전문 교원 50팀이 꾸려지고, 169명의 환경전문가들이 각 학교에 찾아

가 교육할 계획이다.

광주시 최초로 남사르 습지 등록을 신청한 평두 매습지와 장복습지를 보존하고 생태적 가치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는 습지학교 5교를 운영하며, 광주천과 영산강을 축으로 하는 환경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생태전환 글로벌 리더 국제교류로 중고생 20여 명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극지방을 탐방하여 기후위기의 현장을 탐방할 계획이다.

대안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진흥원은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76개 초중고의 교내 대안교실을 지원할 계획이며 조선태병원, 국립나주병원을 돌봄과 치유의 위탁기관으로 지정 운영한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 12개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뿐만 아니라 급식비까지 15억여 원을 지원하며,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교재비 등을 대폭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형 공립대안학교 설립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라는 구호에 맞게 '광주미래고등학교(가칭)'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학교부지 선정, 교과과정, 최적의 교직원 구성에 이르기까지 설립추진단이 구성되어 연차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늘봄지원센터 설치, 온마을이음학교 운영
진흥원의 지역교육협력과에서는 국가시책사업인 늘봄학교 사업계획에 따라 '늘봄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1학기에는 32개 초등학교가 우선 실시되고 2학기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학교 내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개최한 광주교육협치회의 분과회의의 참석자들이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 교육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제공>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10시간 내의 교과전담수업과 늘봄업무를 맡을 기간제 교원과 행정실무사를 선발하여 사전 교육 중에 있다. 맞벌이 가정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청과, 교육지원청은 각 구청과 연계한 '광주교육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미 광산구, 동구, 서구와 온마을이음학교 업무협약을 맺고 '광산 미래기술학교', '동구 미래대학', '서구 중3 진로캠프'가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학교와 마을교육이 직접 연계된 97개 행정동별 주민자치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는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자원을 배우

는 '마을을 통한 교육', 살고 있는 지역을 배우는 '마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찾는 '마을을 위한 교육'으로 자리잡게 된다.

◇광주 학자 협치학교와 학부모지원단 운영, 학부모동아리 285교 지원

시교육청의 팔도 한바퀴 프로그램 일환으로 '광주 학·자(학부모-자녀)협치학교'를 운영한다.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행하여 전국의 문화, 역사를 탐방하고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사·도간 학부모교류를 추진하여 광주문화와 민주성지의 현장을 소개한다.

학부모가 실질적인 교육주체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활동 공유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방학 중 반찬 제공, 나눔장터, 등하교 캠페인을 위해 학부모지원단을 운영하여

연인원 400여 명의 학부모가 활동하게 된다.

초1, 중1, 고1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급별 전환기 학부모교육을 실시했으며 광주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부모아카데미, 아빠-자녀 소통체험, 가족관계 향상 체험, 가족심리회복 지원 등 소통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관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개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기관이며, 모두가 동행하는 시민협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광주다운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기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기관 명칭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현장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물품구매 과정 "더 투명하게"

물품선정위 운영기준 개정·시행

전남교육청이 지난해 발생한 물품구매 과정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물품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현행 구매 예정 물품 선정 위주의 위원회 역할을 확대, 현안사업 선정 과정에서부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 구매 목적 및 구매 물품의 적정성과 향후 활용방안 등 타당성 검토 단계를 새롭게 적용하는 등 물품선정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했다.

위원회 구성원 이외에는 물품 선정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일선 교육 현장의 계약 금액이 확대되는 실정을 반영, 심의 기준금액도 기존 추정가격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대다수의 학교에서 전문지식을 지닌 외부위원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자인 교직원 중심으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 기준을 완화했다.

박영수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물품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ی겠다. 공준과 상생의 교육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기적인 운영 실태 점검과 교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신대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 3년 연속 최우수

전문랩 부문 S등급 획득

동신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사진)이 3년 연속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동신대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2023년도 연차평가' 전문랩 부문에서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지난 2021년도 연차 평가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에서 사업단은 ▲프로그램 운영 ▲시제품 제작 지원 ▲제조창업 지원 등 사업수행 실적에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전문인력 활용, 전문성 강화 노력, 장비 및 시설 안전관리와 같은 사업수행 적절성과 지속 성장 가능성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은 2023년 한 해 동안 ▲투자유치 9건(19억원) ▲메이커체험 교육 프로그램 244회 진행(참여 인원 2,244명) ▲메이커 문화 확산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 협약 67건 ▲23개 신규창업 기업 지원 ▲시제품 제작 182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



또 광주·전남 중·고등학교와 대학, 예비 창업자, 창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구현과 시제품 제작 등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동휘 동신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사업단장은 "앞으로도 에너지산업용 메이커스페이스 전문 인프라 운영과 창업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조기 발굴에 힘쓰며 4차산업혁명 기반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간호학과 국시 전원 합격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간호학과가 국가시험 100% 합격에 이어 보건교사 임용시험에서도 2년 연속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보건교로 전문가 육성에 결실을 맺고 있다.

동강대 간호학과(학과장 정은서)는 '제64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응시자 174명이 전원 합격했다. 또 동강대 간호학과는 보건교사 임용시험에서도 23-24년 2년 연속 합격생을 배출했다.

2022학년도 졸업생인 김유진 씨는 24년도 전라남도 교원 임용고시에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 최근 해남 서정초등학교로 발령받았다.

김유진 씨는 "동강대에서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서 동강대 간호학과는 23년도 보건교사 임용고시에서도 2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동강대 간호학과는 1995년 학과 개설 후 2013년 4년제로 승격됐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5년 인증을 획득해 정부로부터 우수한 간호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이은이 | 조선의
퍼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